

학제에 따른 치위생(학)과 학생의 대학생활적응 비교

류다영 · 송귀숙[†]
해전대학교 치위생과

1. 서론

대학생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하는 시기로 다양한 요인 및 변화 속에 적응하고, 정체감과 가치를 형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건강한 사회인으로 발달해 가야 하는 과업을 안고 있으며, 입시위주 고교생활과 달리 대학에서는 교우 및 이성관계, 경제활동, 학업, 진로 및 취업 등 다양한 상황에 놓이게 되며 이러한 요인에 의한 여러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미흡하여 발달과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업중단 등 대학생활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¹⁻⁴⁾.

치위생(학)과 대학생들은 전공 관련 학업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임상기술에 대한 습득, 임상실습, 대상자 직접 실습,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에 대한 중압감 등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⁵⁾. 이러한 요인에 의해 학교 생활 및 학업에 대한 흥미 감소와 대학생활의 부적응

을 가져올 수 있기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대학생활적응이란 대학생들이 건전한 개인 심리를 바탕으로 대학생활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과업, 즉 학업과 진로, 대인관계 등의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과정과 결과를 의미한다⁶⁾. Baker와 Siryk⁷⁾는 학업 성취와 관련된 학업적 적응, 새로운 대인관계 형성과 과외 활동과 관련된 사회적 적응, 대학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신체적 장애와 관련된 개인-정서적 적응, 그 밖에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에 대한 만족이나 긍지 등 대학 환경적 적응이라고 하였다. 대학생들의 적응은 더 나아가 대학 졸업 후 사회생활 및 사회적 진출에 성공요소로도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대학생활적응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적응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윤 등⁸⁾은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고,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⁹⁾. 또한 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¹⁰⁾,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은 것⁵⁾으로 보고된 바 있다. 하지만 치위생(학)과 학생 대상의 대학생활적응 관련 연구가

접수일: 2019년 12월 9일 최종수정일: 2019년 12월 20일
게재 확정일: 2019년 12월 23일
교신저자: 송귀숙, (32244)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학1길 19
해전대학교 치위생과
Tel: 041-630-5328, Fax: 041-630-5176
E-mail: herinmom@hj.ac.kr

부족하기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3년제와 4년제 치위생(학)과 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비교함으로써 학제에 따른 대학 생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편의표본추출법에 의해 선택된 3년제 치위생과 300명과 4년제 치위생학과 2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017년 06월 27일부터 08월 31일까지 설문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회수된 설문지 446부 중 무응답 및 불성실한 설문지 7부를 제외하고 439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W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WKIRB-201706-SB-035)을 받아 실시하였다.

2.2. 연구도구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에 관한 내용 3문항, 대학생활적응 검사를 위한 SACQ척도 25문항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Baker와 Siryk⁷⁾가 개발한 대학생활적응척도(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근거로 이¹¹⁾가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SACQ는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 신체적 적응, 대학에 대한 애착 적응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요인 당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25문항이다. 각 문항은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였다.

대학생활적응의 각 요인별로 신뢰도 분석을 시행하여 신뢰도가 낮은 문항을 각 요인별로 1문항씩 제거하여 각 요인마다 4문항을 사용하였고, 최종 Cronbach's

α 는 학업적 적응 0.732, 사회적 적응 0.536, 정서적 적응 0.644, 신체적 적응 0.543, 대학에 대한 애착 적응 0.696이었다.

2.3. 통계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ver. 23.0(IBM Co.,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통계적 유의수준(α)은 0.05로 하였다. 일반적 특성 및 학제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차이는 T-test, one way ANOVA를 시행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 test 를 실시하였다. 학제와 학생들의 성적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는 two 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학제에 따라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logistic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정도

성별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은 여자(2.56 ± 0.37 점)보다 남자(2.94 ± 0.33 점)가 높았고, 학년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은 2학년(2.69 ± 0.37 점), 1학년(2.60 ± 0.32 점), 3학년(2.49 ± 0.37 점) 순으로 나타났다. 성적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은 성적이 높아질수록 대학생활적응도 높았다($p < 0.05$)(Table 1).

3.2. 학제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정도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은 4점 만점에 3년제 2.57 ± 0.39 점, 4년제 2.57 ± 0.34 점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 중 대학에 대한 애착적응은 3년제 2.69 ± 0.48 점으로 4년제 2.52 ± 0.54 점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01$)(Table 2).

3.3. 학제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제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3). 모형 I 은 대학생활적응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변수

Table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정도

항목	N(%)	Mean ± SD	p*
성별			
남	10(2.3)	2.94 ± 0.33	0.001
여	429(97.7)	2.56 ± 0.37	
학년			
1학년(a)	115(26.2)	2.60 ± 0.32	<0.001 ^{c<a,b}
2학년(b)	110(25.1)	2.69 ± 0.37	
3학년(c)	214(48.7)	2.49 ± 0.37	
성적			
4.0이상(a)	37(8.4)	2.71 ± 0.28	<0.001 ^{c<a,b,c}
3.5이상~4.0미만(b)	105(23.9)	2.67 ± 0.31	
3.0이상~3.5미만(c)	146(33.3)	2.58 ± 0.41	
2.5이상~3.0미만(d)	117(26.7)	2.49 ± 0.34	
2.5미만(e)	34(7.7)	2.29 ± 0.37	

* by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Scheffe)

Table 2. 학제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정도

	전체	3년제	4년제	p*
	Mean ± SD	Mean ± SD	Mean ± SD	
대학생활적응	2.57 ± 0.37	2.57 ± 0.39	2.57 ± 0.34	0.992
학업적 적응	2.37 ± 0.54	2.36 ± 0.57	2.37 ± 0.50	0.789
사회적 적응	2.92 ± 0.40	2.91 ± 0.39	2.92 ± 0.40	0.737
정서적 적응	2.55 ± 0.54	2.52 ± 0.56	2.59 ± 0.53	0.228
신체적 적응	2.39 ± 0.47	2.36 ± 0.47	2.43 ± 0.47	0.099
대학에 대한 애착 적응	2.61 ± 0.51	2.69 ± 0.48	2.52 ± 0.54	0.001

* by Independent t-test

로 투입한 결과 3년제 학생에 비해 4년제 학생은 정서적 적응, 대학에 대한 애착 적응, 성적 3.0 이상~3.5 미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p < 0.05$). 정서적 적응은 3년제 학생보다 4년제 학생이 1.84배 높았고 대학에 대한 애착 적응은 4년제 학생보다 3년제 학생이 0.25배 높았다. 성적 3.0 이상~3.5 미만은 4년제 학생보다 3년제 학생이 0.53배 높았다.

모형 II는 대학생활적응 변수만을 투입한 결과로 3년제 학생에 비해 4년제 학생은 정서적 적응과 대학에 대한 애착 적응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5$). 정서적 적응은 3년제 학생에 비해 4년제 학생이 1.79배 높았고 대학에 대한 애착 적응은 4년제 학생보다 3년제 학생이 약 0.28배 높았다.

3.4. 학제와 성적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비교

학제와 성적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을 비교하였다(Table 4).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학업적 적응은 3년제와 4년제 모두 성적이 좋을수록 학업적 적응도 높았다. 사회적 적응과 신체적 적응은 3년제에서 4.0 이상이 가장 높았고 4년제에서는 3.0 이상~3.5 미만이 가장 높았다. 정서적 적응과 대학생활적응은 3년제에서 4.0 이상이 가장 높았고 4년제에서는 3.5 이상~4.0 미만이 가장 높았다. 대학에 대한 애착 적응은 3년제에서 3.5 이상~4.0 미만이 가장 높았고 4년제에서는 4.0 이상이 가장 높았다.

3.5. 학제와 성적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차이분석

성적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F=9.230, p<0.001), 학제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학제와

성적의 상호작용 효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적이 좋을수록 대학생활적응도 높아지나 학제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고 학제와 성적의 상호작용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Table 5).

Table 3. 학제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Model I						Model II					
	B	S.E	Wald	OR	95% CI	p*	B	S.E	Wald	OR	95% CI	p*
학업적 적응	0.050	0.260	0.037	1.051	0.631~1.751	0.847	0.231	0.233	0.983	1.259	0.798~1.987	0.322
사회적 적응	0.141	0.300	0.222	1.152	0.640~2.074	0.638	0.141	0.296	0.228	1.151	0.645~2.056	0.633
정서적 적응	0.610	0.286	4.556	1.840	1.051~3.222	0.033	0.583	0.280	4.324	1.791	1.034~3.103	0.038
신체적 적응	0.369	0.269	1.871	1.446	0.853~2.451	0.171	0.332	0.265	1.564	1.393	0.829~2.342	0.211
대학에 대한 애착 적응	-1.374	0.272	25.443	0.253	0.148~0.432	<0.001	-1.292	0.265	23.830	0.275	0.163~0.461	<0.001
성별(남)	0.982	0.702	1.955	2.670	0.674~10.574	0.162						
나이	0.058	0.058	0.987	1.059	0.945~1.187	0.320						
성적(3.5 이상~4.0 미만)	-0.338	0.387	0.763	0.713	0.334~1.523	0.383						
성적(3.0 이상~3.5 미만)	-0.637	0.312	4.159	0.529	0.287~0.976	0.041						
성적(2.5 이상~3.0 미만)	0.353	0.248	2.030	1.423	0.876~2.312	0.154						
성적(2.5 미만)	-0.035	0.197	0.032	0.966	0.657~1.419	0.859						

학제(reference=4년제), 성적(reference=4.0 이상)

Model 1 : 대학생활적응(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 신체적 적응, 대학에 대한 애착 적응),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나이, 성적) 변수 사용

Model 2 : 대학생활적응(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 신체적 적응, 대학에 대한 애착 적응) 변수 사용

* by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able 4. 학제와 학생들의 성적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비교

	학업적 적응		p*	사회적 적응		p*	정서적 적응		p*	신체적 적응		p*	대학에 대한 애착 적응		p*	대학생활적응		p*
	3년제	4년제		3년제	4년제		3년제	4년제		3년제	4년제		3년제	4년제		3년제	4년제	
	4.0 이상	2.70±0.10	2.77±0.15	0.771	3.02±0.08	2.86±0.12	0.072	2.67±0.11	2.41±0.16	0.526	2.47±0.09	2.43±0.14	0.831	2.78±0.10	2.78±0.15	0.758	2.73±0.07	2.65±0.11
3.5 이상~4.0 미만	2.63±0.07	2.65±0.07		2.95±0.05	2.97±0.06		2.60±0.07	2.67±0.08		2.39±0.06	2.40±0.07		2.85±0.07	2.65±0.07		2.68±0.05	2.67±0.05	
3.0 이상~3.5 미만	2.41±0.06	2.32±0.06		2.91±0.04	3.01±0.05		2.54±0.06	2.60±0.67		2.38±0.05	2.47±0.06		2.72±2.61	2.48±0.06		2.59±0.04	2.58±0.04	
2.5 이상~3.0 미만	2.14±0.06	2.19±0.07		2.87±0.05	2.87±0.06		2.48±0.06	2.55±0.08		2.32±0.06	2.44±0.07		2.60±0.06	2.42±0.08		2.48±0.04	2.49±0.05	
2.5 미만	1.86±0.10	1.80±0.15		2.83±0.08	2.50±0.12		2.24±0.11	2.43±0.16		2.21±0.10	2.36±0.14		2.36±0.10	2.30±0.15		2.30±0.08	2.23±0.11	

* by the Two way ANOVA

Table 5. 학제와 학생들의 성적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차이분석

	Type III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p*	partial eta squared	Scheffe test
학제	0.043	1	0.043	0.333	0.564	0.001	a > e
성적	4.715	4	1.179	9.230	<0.001	0.079	
학제와 성적	0.046	4	0.012	0.091	0.985	0.001	
오차	54.793	429	0.128				
전체	2952.880	439					

* by the Two way ANOVA

4. 고찰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학제에 따른 대학생활적응도의 차이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나 김과 이⁹⁾의 연구와 일치하였고,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와 곽⁴⁾의 연구, 오¹²⁾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4점 만점에 2.57점(5점 환산 시 3.21점)으로 이는 조 등¹⁰⁾의 연구에서 치위생(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3.24점(5점 만점), 김과 이⁹⁾의 3.14점과 유사하였다.

대학생활적응의 하위구성요인 중 사회적 적응이 2.92점(5점 환산 시 3.6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학업적 적응이 2.37점(5점 만점 시 2.96점)으로 가장 낮았다. 김⁵⁾의 연구에서는 정서적 적응이 3.4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았고, 대학에 대한 애착이 2.29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김과 이의 연구에서는 대학에 대한 애착이 3.35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았고, 학업적 적응이 2.87점으로 가장 낮았다. 각 연구별 대학생활적응의 하위구성요인별 점수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적 적응은 학점, 성적관리가 취업과 연계되기도 하며 대학생활적응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학생의 학습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 박 등¹³⁾의 연구에서 학업부진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적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학업성적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학과나 학교 차원에서의 학생 학습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적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학제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하위구성요인인 대학에 대한 애착 적응에서만 3년제가 4년제보다 높았다($p=0.001$). 김⁵⁾의 연구에서는 3년제 3.07점으로 4년제 2.99점보다 높게 나타나($p=0.004$)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학제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서적 적응, 대학에 대한 애착 적응, 성적 3.0 이상~3.5 미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p < 0.05$). 정서적 적응은 3년제 학생보다 4년제 학생이 1.84배 높았고 대학에 대한 애착 적응은 4년제 학생보다 3년제 학생이 0.25배 높았다. 성적 3.0 이상~3.5 미만은 4년제 학생보다 3년제 학생이 0.53배 높았다.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대학생 발생은 대학들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¹⁴⁾. 이에 본 연구 결과는 학제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치위생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한 세부적인 대처 방안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편의표본추출에 의한 대상자 조사 결과 이기에 전체 치위생(학)과 학생에게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연구대상자의 확대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치위생(학)과 학생의 학제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비교함으로써 대학생활적응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2017년 06월 27일부터 08월 31일까지 3년제 치위생과 300명과 4년제 치위생학과 20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439부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고, 성적이 높을수록 높았다(<0.001).
2. 대학생활적응도는 평균 2.57점(4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하위구성요인 중 사회적 적응이 2.92점으로 가장 높았고, 학업적 적응이 2.37점으로 가장 낮았다. 학제에 따른 대학생활적응도는 하위구성요인 중 대학에 대한 애착적응이 3년제(2.69

점)가 4년제(2.52점)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01$).

3. 학제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3년제 학생에 비해 4년제 학생은 정서적 적응, 대학에 대한 애착 적응, 성적 3.0 이상~3.5 미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p<0.05$). 정서적 적응은 3년제 학생보다 4년제 학생이 1.84배 높았고, 대학에 대한 애착 적응은 4년제 학생보다 3년제 학생이 0.25배 높았다. 성적 3.0 이상~3.5 미만은 4년제 학생보다 3년제 학생이 0.53배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치위생(학)과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향상을 위해 하위구성요인을 파악하고, 학제에 맞는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Park JH. A study on examining the mediating effect of stress upon the relationships between irrational beliefs, positive, negative emotions and adaption to school life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15;22(6):161-185.
<http://dx.doi.org/>
2. Kim YK, Ju H. The effects of stress and health status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2014;56(1):749-757.
3. Kim HS, et al. A qualitative study on living as a university stud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4;12(11):565-574.
<http://dx.doi.org/10.14400/JDC.2014.12.11.565>
4. Yi JE, Kwak HW. Rela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Harmony, Stress Coping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6; 14(11):527-537.
<http://dx.doi.org/10.14400/JDC.2016.14.11.527>
5. Kim SJ.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Stress and College Adaptation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Asia-pacific J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2018;8(9):873-881.
<http://dx.doi.org/10.21742/AJMAHS.2018.09.01>.
6. Jeong EI, Park YH.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llege Adjustment Scal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2009;21(2):69-92.
7. RW. Baker, B. Siryk. Measuring academic motivation of matriculating college freshmen.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1984;25(5):pp459-464.
8. Yun HK, et al. The structural relationship that self-elasticity of student in dental hygienic influences study satisfaction and life adaptation of college. *J of digital convergence*.2014; 12(5):335-343.
<http://dx.doi.org/10.14400/JDC.2014.12.5.335>
9. Kim YS, Lee JH. Influence of college life adjustment on emotional intelligence in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2016;16(6):919-929.
<https://doi.org/10.13065/jksdh.2016.16.06.919>
10. Cho MS, Park JH, Jang KA. Convergent relationship between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college life adaptation in freshmen of dental hygiene department.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2019;9(10):195-202.
<https://doi.org/10.22156/CS4SMB.2019.9.10.195>
11. Lee YJ. The Non-Residential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Life and Career Pla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000.
12. Oh YJ. Predictors of college lif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7;15(7):307-317.
<https://doi.org/10.14400/JDC.2017.15.7.307>

13. Park JE, Kim EJ, Kim WS. The effectiveness of the learning supporting program for underachieved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 and Culture* 2019;25(4):373–399.
<https://doi.org/10.24159/joec.2019.25.4.373>
14. Bang IJ. The effect of counseling experience on adaptation and satisfaction of university – focusing on P university. *Journal of Liberal Arts Education Studies* 2018;3(1):87–111.

ABSTRACT

College life adaptation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Da-Young Ryu, Kwui-Sook Song[†]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Hyejeon College

Introduction: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adaptation to college life of dental hygiene students.

Methods: A total of 300 students in the 3-year course, and 200 students in the 4-year course at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were selected.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used between 27th June and 31st August 2017. From this, 439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Results: 1. The overall degree of adaptation to college life, according to varied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students, appeared to show that male students had a higher degree of adaptation than female students. It also appeared to be higher in students that had a higher level of academic accomplishment(<0.001).

2. The average score of the degree of adaptation to college life was 2.57 points(full score of 4.00 points). Social adaption had the highest score of 2.92 points, while academic adaptation had the lowest score of 2.37 points. Regarding the subordinate domains of adaptation to college life, the average score of attachment adaptation of students in the 3-year course of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2.69 points) appeared to be higher than that of students in the 4-year course(2.52 points).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score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p=0.001$).

3. The effects of varied academic systems upon the degree of adaptation to college life were also analyzed. Emotional and attachment adaptation to college, as well as the academic accomplishment of students in the 3-year course, was distributed over a range of 3.0~3.5. Thi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compared to students in the 4-year course($p<0.05$).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stepwise and continuous educational programs to enable better college life adaptation for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Keywords: College life adaptation, Dental hygiene students